



2천년대 환경계의 마지막 선비

故 정영호 박사님을 추억하며... <2>

글/사진 : 박창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2마침, 숙직실 앞을 지나던 고 정영호 박사님이 벌
을 서고 있는 필자를 보고, 숙직실 안으로 들어왔
다. “너 이 위, 경찰학교 P교수님 아들이 아니냐?”
고 정영호 박사님은 당시, 대학생으로 가끔 우리 집에 찾아
와 가친(家親)으로 부터 영어를 배워, 필자를 기억하고 있
었던 것이다.

필자를 벌주고 있던 고 미승우씨는 필자를 알아 본, 고
정영호 박사님의 출현에 난처해진 듯, 필자의 만행을 정영
호 박사님에게 꼬치꼬치 일러바쳤다. 그러나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은 고 정영호 박사님은 자기도 그런 이야기(필
자에게 구슬이나 딱지를 상납해야, 과학관 입장이 가능했
던 만행)를 들었다며, 그게 바로 너였구나?며, 파안대소 하
였다.

고 정영호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
환경보존학과에서 야생동물학을 하신 후, 미국
워싱턴으로 유학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야생동물학 전공을 하시게 되었는데, 고
정영호 박사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으며,
다시, 사진의 일부와 같이 조영하, 박창근, 정영호 사
랑기 때문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어떻게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궤도 새도 모르게 한 일인데..』

그러면서 고 미승우씨에게 “내가 잘 아는 학생이니, 이제 그만 돌려보내라” 고 말하자, 미승우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런 것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고 정영호 박사님의 호의로 그 날, 벌은 그렇게 간단히 면했지만, 이 사건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과학관 입장의 만행뿐만 아니라, 새벽에 떠 오는 약수도 필자가 직접 약수터에 가서 떠 온 것이 아니라, 집 앞(집이 경찰학교 관사라, 집 앞에 경찰관이 보초를 서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그 보초의 힘을 빌려 지나가는 아이들을 불러 세우면, 모두들 군소리 없이 내 말을 들었다.)에서 다른 아이들이 약수터에서 떠 오는 약수를 강탈해 온 것도 들통이나, 가친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밖에서 놀다 집에 와 방문을 열자, 방안에는 고 정영호 박사님과 미승우씨가 가친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은가? 너무 놀라, 후다닥 그 자리에서 줄행랑을 쳤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어떻게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궤도 새도 모르게 한 일인데..’

고 미승우씨로부터 벌을 받은 후, 필자는 미승우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뱀 한 마리를 잡아 (당시 남산에는 뱀이 많아, 남산 부근에서 사는 애들은 뱀 잡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숙직실의 미승우씨 가방 속에 넣었던 것이다. (당시 고 미승우씨는 고학생 신분으로 과학관 숙직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그사실을 안, 미승우씨가 정영호 박사님과 함께 집으로 찾아와, 가친께 그사실을 일러바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친해진 고 정영호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날 가친께서 지난번의 필자의 만행을 사과하는 뜻으로 두 분을 집에 초청하여, 저녁 식사를 나누며, 담소 중이었던 것이다.

도둑이 제발에 저러 뺏소니쳤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담은 20여년이 지난 후, 필자가 환경보호운동을 시작한 1970년 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 교수인 정영호 박사 그리고 자연보존협회에 근무했던 미승우씨를 만나면서 확인되고, 감격했었다.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 필자는 정영호 박사님과 각별한 사이로 친했다.

〈다음호에 계속〉